

# “미분양아파트 쌓인다”...3개월 연속 증가, 수도권까지 위협

전국 미분양 3개월 연속 증가세...경기 안성 미분양관리지역 CR리츠 10년 만에 부활...민간 취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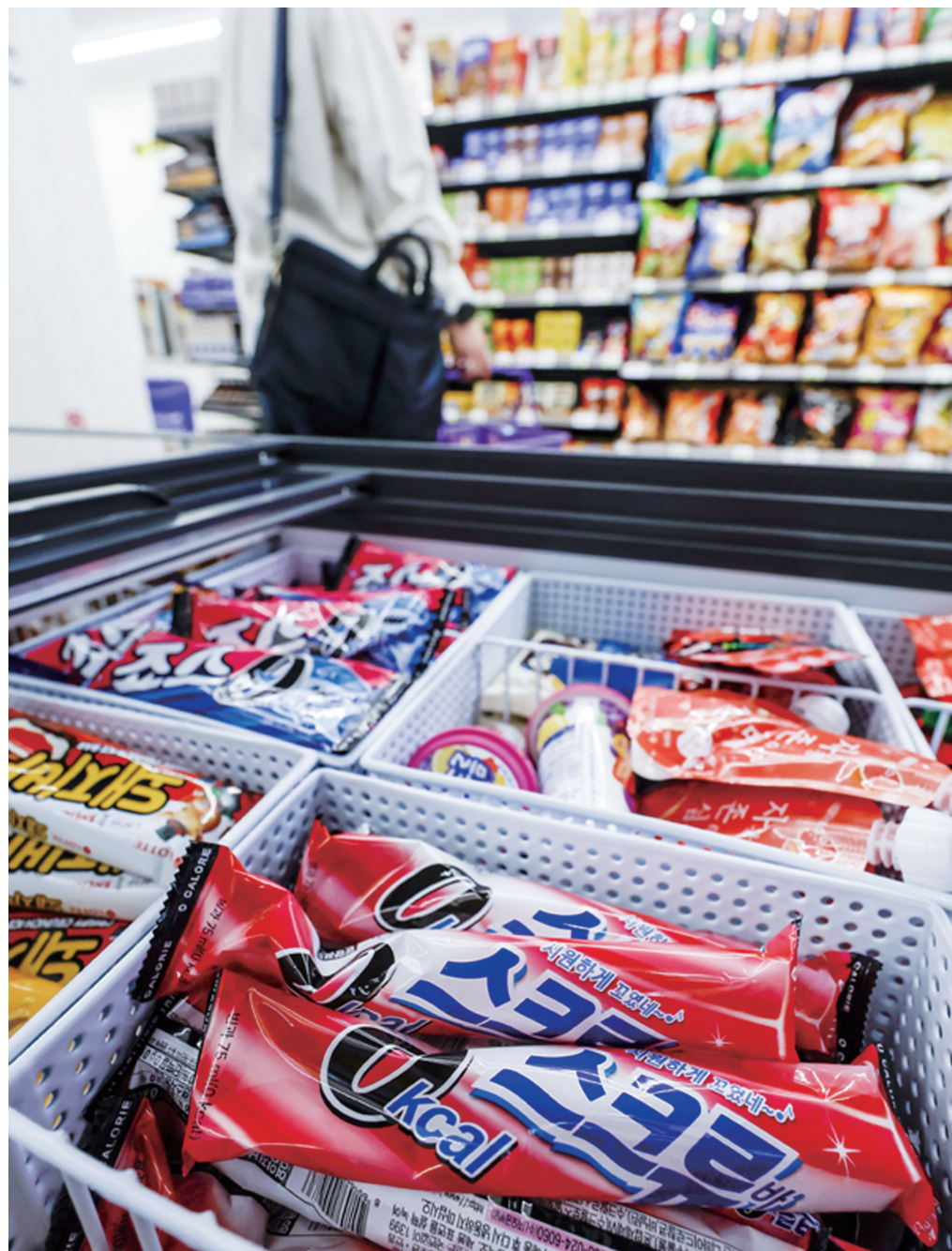
전국 미분양 주택이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수도권에서 다시 미분양관리지역이 나오는 등 분양시장 침체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역의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등 '출도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일부 건설사는 자산 매각과 할인 분양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부담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경기 안성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안성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같은 해 10월 관리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분양 보증 발급을 발급받을 때 사전심사 절차를 거쳐지게 된다. 기존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경기 안성의 지난 2월 말 기준 미분양 규모는 1689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월 1679가구에서 올해 1월 459가구까지 줄었다가 최근 다시 대폭 늘어난 것으로, 경기도 전체 미분양(8095가구)의 21%를 차지했다. HUG가 관리하는 미분양 관리지역은 총 9곳으로 늘었다. 경기 안성을 포함해 ▲대구 남구 ▲울산 울주 ▲강원 강릉 ▲충북 음성 ▲전북 군산 ▲전남 광양 ▲경북 포항·경주 등이 이달 9일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관리를 받는다. 이번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9개 지역 중 미분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북 포항(3447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 남구는 2232가구, 울산 울주 1748가구, 충북 음성 1603가구, 전남 광양 1604가구, 경북 경주는 1449가구다.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4874가구로, 전월(6만3755가구) 대비 1.8%(1119가구)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 수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1만1867가구)은 전월(1만1363가구) 대비 4.4%(504가구) 증가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 수도권 미분양은 1만1956가구로 전월(1만160가구) 대비 17.7%(1796가구) 증가했고, 지방은 5만2918가구로 전월(5만3595가구) 대비 1.3%(677가구) 감소했다. 미분양 물량 누적되면서 건설업계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는 104건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5.3% 증가했다. 폐업 건수는 지난 1월(35건)과 2월(68건)에도 지난해 동월 대비 각각 12.9%, 33.3% 증가했다. 또 전문건설업 폐업 건수 역시 지난달 618건으로, 지난해 동월에 비해 10.7% 늘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수도권 건설업체(금융결제원이 공식하는 당좌거래정지 건설업체·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는 제외)는 지난 1월 3곳, 2월 2곳, 3월 4곳 등 총 9곳이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수도권 업체 수(3곳)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역별로 서울 1곳, 경기 1곳, 부산 2곳, 광주 1곳, 울산 1곳, 경북 1곳, 경남 1곳, 제주 1

곳 등이었다. 이 가운데 7곳이 지방 업체였다. 정부도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1월 '1·10대책'을 통해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6억 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면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말에는 기업 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부활해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민간에 대한 세제 완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CR리츠의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다소 필요하고,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민간 영역에서의 취득세 감면 등 부동산 세제 지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권기자



**'제로' 제품들 인기** 21일 서울 시내 편의점에 '제로(ZERO)' 아이스크림이 진열되어 있다.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설탕과 탄수화물, 알코올 등 특정 성분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 “동심 잡아라” 유통업계, 어린이날 앞두고 완구·패션 할인

5월5일 어린이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통업계가 선물용 인기 완구부터 다양한 패션 의류까지 할인해 선보이고 있다. 20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가 운영하는 키즈 브랜드 패션 편집숍 '무신사 키즈'는 다음달 5일까지 '어린이날 선물 페스타'를 개최한다. 어린이날 선물로 주로 찾는 유아동 의류 및 장난감, 장난감, 승용 완구, 유아용품 등 주요 키즈 카테고리 상품을 최대 78% 할인한다. 이번 어린이날 행사에는 내셔널지오그래픽 키즈, 노스페이스 키즈, 젤리벨로 등 180여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행사 기간에 신상품 선발매와 단독 발매 소식도 예정됐다. 유아용품 브랜드 '밤부베베', 레인부츠 브랜드 '헌터 키즈' 등이 무신사 키즈에서 신상품을 단독 발매하고 기념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유아동 의류로 좋은 반응을 얻은 '로토토베베', '베베테일러' 등도 무신사 키즈에서 신상품을 가장 먼저 선보인다. 이 밖에도 최대 20% 할인 쿠폰을 증정하고, 하루 특가, 포커싱 브랜드 특가 등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랜덤 추첨을 통해 인기 상품을 증정하는 래플 이벤트도 선보인다. 홈플러스는 어린이날을 맞아 완구 상품을 최대 80% 할인한다. 먼저, 캐치니핑 럭키박스를 정상가에서 70% 할인한 2만9900원에 1000개 한정판으로 선보이며, 캐치니핑 슈가베리팩트, 빌리지마트, 빌리지주스가게 등 인기 3종 상품은 5만7000원부터 판매한다. 어린이날 선물로 꾸준히 사랑받는 레고의

무신사, 다음달 5일까지 '어린이날 선물 페스타' 개최



경우, 인기 상품 100여종을 최대 40% 할인한다. 용의 해 기념 출시로 인기를 끌고 있는 레고 '상서로운 용' 상품은 할인점 단독으로 판매하며, 레고 전품목 10만원 이상 구매시에는 '레고 브릭파우처와 키링세트' 증정품을 제공한다. 어린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 손꼽히는 게임기 할인 행사도 마련했다. 닌텐도 스위치 OLED본체 2만원 할인과 인기타이틀 24종을 15% 할인하며, 닌텐도 조이콘 7종은 9000원 할인 판매한다. 소니 PS5 본체 슬림 에디션 역시 2만원 할인한다. 이 외에도 위메프는 다음달 8일까지 '가정의

달' 특별 기획전을 열고, 완구류 할인에 나선다. '초이락 헬로카봇 스톱' 한정판, '비블호텔 매직호텔로비' 등 장난감부터 '닌텐도 스위치 OLED' 등이 대표 상품이다. 쿠팡은 스포츠·레저 카테고리 제품을 최대 35% 할인하는 '스포츠 선물특가'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에는 랜드웨이·필라·볼빅을 비롯한 다수의 브랜드가 참여하며 어린이와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자전거·인라인·킥보드 등 휠 스포츠,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야외 스포츠와 등산 및 골프 용품까지 총 800여개의 상품을 준비했다. 이슬비기자

## 제니퍼룸, 미니 손선풍기·멀티쿠커 출시

락앤락의 자회사 브랜드 제니퍼룸이 1~2인 가구를 위한 휴대용 미니 가전 핸드스톱 미니 손선풍기와 미니 멀티쿠커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핸드스톱 미니 손선풍기는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사이즈의 휴대용 선풍기로, 접이식 손잡이를 펼치면 테이블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7엽날개와 3단계 풍량 조절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BLDC모터를 탑재해 4200RPM 회전력으로 멀리까지 닿는 바람을 일으킨다. 2000mAh 대용량 배터리는 완충 시 최대 1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핫플레이트와 냄비로 구성된 미니 멀티쿠커는 버튼 하나로 라면부터 찜, 굽기, 볶음 요리 등 다양한 조리 가능하다. 핫플레이트는 전용 냄비 외에 프라이팬, 스테인리스 냄비와도 호환 가능해 활용도가 뛰어나다. 전원 코드를 분리해 냄비 안에 본체를 넣으면 부피가 반으로 줄어들어 캠핑, 여행시



에도 휴대가 편하고 가족 여행시 영유아의 질병 소독 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제니퍼룸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미니 가전은 1~2인 가구들이 집에서 사용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캠핑, 나들이 등 외출 시에도 활용하기 좋다"고 소개했다. 제니퍼룸은 락앤락이 2020년에 인수한 락커룸코퍼레이션의 디자인 가전, 라이프스타일 전문 브랜드로 1~2인 가구를 위한 차별화된 제품과 디자인을 선보인다. 제니퍼룸 가전 상품은 구매 후 전 제품 1년 무상 보증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국 51곳에 위치한 락앤락 AS센터에서 상시 AS가 가능하다. 뉴스

## 4월 반도체 업황 '보합'...제조업 업황 4개월 만에 주춤

KEIT,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 조사 발표

전문가들이 체감하는 제조업 업황이 4개월 만에 주춤했다. 반도체 부문은 보합세를 보인 반면 소재 부문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21일 산업연구원(KEIT)이 지난 5~12일 전문가 139명, 191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 조사(PSI) 결과'에 따르면 4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는 108로 집계됐다. 9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상회하지만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PSI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개선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악화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수(107)와 수출(113)은 기준치를 상회하지만 이달 하락 전환했다. 생산(113)은 전분기 수준을 이어갔다. 업황별 PSI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기계 부문에서 기준치(100)를, 기계 부문(103)도

3개월 연속 기준치를 웃돌았다. 소재부문은 2023년 4월부터 100을 밑돌다 이달 기준치를 회복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휴대폰과 기계, 철강, 바이오, 헬스 등을 제외한 다수 업종이 기준치를 상회했다. 전월 대비 화학과 철강 등 소재 업종에서 현저히 상승한 반면 반도체와 섬유 등 업종은 보합했다. 휴대폰과 자동차 기계 등은 현저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서선욱기자

## “액티브웨어 저변 확대” SSG닷컴, 룰루레몬 브랜드관 연다

SSG닷컴은 오는 22일 글로벌 스포츠웨어 브랜드 룰루레몬의 브랜드관을 열고 액티브웨어 시장 저변 확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SSG닷컴은 룰루레몬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기존 룰루레몬 공식스토어를 브랜드관으로 확장해 선보인다. 브랜드관은 공식스토어

의 상위 개념으로 일종의 '온라인 플래그십 스토어'다. 양사는 브랜드관 오픈을 통해 요가·러닝·골프 라인 등 스테디셀러 물량과 온라인 단독 상품을 확대하며 배송과 마케팅 분야의 협력도 강화한다. 2017년 오픈한 룰루레몬 공식스토어는 슝

컴 스포츠 카테고리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매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며 지난해 매출은 2021년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지난해 8월에는 룰루레몬의 국내 첫 라이선싱을 슝닷컴에서 진행했다. 김희면기자